

石油時評

低油價時代와 에너지政策의 再檢討



産業이 발전해야 經濟가 발전한다. 産業의 발전은 올바른 産業政策에 의해 뒷받침될 때 보다 효율적으로 達成된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의 우리 나라 經濟나 台灣, 그리고 日本의 경제발전 모형에서도 알 수 있다.

産業政策의 목적은 市場機能을 補完하여 보다 바람직한 産業構造와 産業組織을 실현시킴으로써 産業의 효율적인 발전을 期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雇傭機會의 확대, 나아가서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國民福祉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대폭적인 價格引上으로 지난 70年代에 두차례 石油危機를 겪었던 世界經濟는 바야흐로 逆오일쇼크의 소용돌이 속에서 「低油價時代」를 맞고 있다. 原油價格의 20달러台 時代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原油價格은 2,3년전만 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異變으로서 우리 經濟도 低油價時代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계제를 맞았다.

原油價格의 下落을 놓고 지금 각국마다 自國에 미치는 플러스·마이너스 效果를 나름대로 計量하고 그 對應策에 腐心하고 있지만, 우리로서 가져야 할 視角은 이를 단순한 原油價格의 변화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第1次 및 第2次 石油危機 이후의 石油情勢와 세계경제 및 各國産業에 나타나고 있는 構造的 변화를 인식하고 앞으로의 효과적인 對應策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石油市場을 좌우했던 OPEC의 絶對 優位는 당분간 회복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低油價時代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미 世界의 石油市場은 現物市場의 去來비율이 全 原

油去來量の 20~30%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지역에서는 이 比率이 40~50%에 달함으로써 OPEC産油國과의 직접계약에 의한 去來가 상대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수요감퇴와 공급과잉에 따라 油價의 계속적인 下落을 관망하는 西方의 石油輸入社들이 비싼 가격에 의한 OPEC와의 長期계약거래를 되도록 억제하고 不足量만큼 그때 그때 現物市場에서 補充구매하는 데서 일어난 현상이다. 바꾸어 말하면, 石油市場의 去來패턴이 종래의 販賣者가 主導權을 쥔 셀러즈 마켓에서 購入者가 주도하는 바이어즈 마켓으로 달라진 것이며, OPEC의 原油供給도 市場에 커니즘의 支配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年間 1억 8천만 배럴 이상을 輸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原油購入方式에 있어서도 이같은 石油市場의 변화를 전제로 새로운 対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86년의 原油價格을 배럴당 50달러 이상으로 잡았던 第5次 5年計劃에 대해서도 現實의 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정부는 油價의 지속적인 上昇을 전제로 原油依存度를 81년의 58.4%에서 86년까지 46.2%로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脫石油政策을 低油價時代에 그대로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뉘따를 것이다. 따라서 脫石油政策의 무리한 추진을 止場하고 에너지政策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時點에 이른 것 같다.

또 國際原油價格의 하락세는 그 동안 歪曲된 國內油價構造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點에서 油種間 價格구조를 합리적으로 改編하여 국제화를 유도하고 油價連動制를 도입하는 한편 油價管理에 있어서도 정부규제를 가급적 축소하여 國內油價를 原油價와 換率에 連動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는 原油價格의 하락과 관련하여 하락폭의 일정비율을 關稅로 흡수하여 財政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를 國內油價引下에 반영한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國內의 高油價수준에 따른 수급안정의 저해이다. 현재의 國內油價는 수요구조의 重質化 및 과도한 정부부문비용(전체原價의 약 20%)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B-C 油 등 産業用 燃料 및 원료의 高價는 下流部門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했으며, 또 이는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국가경제발전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國內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다. 최근 國內經濟는 수출부진과 산업구조적인 不況에 따른 고용기회의 감소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급한 課題는 경기회복과 輸出增大이다. 油價下落으로 인한 原價요인의 절감은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기르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최선, 최대의 촉진제이다.

물론 B-C 油를 포함한 수출관련 油價는 대폭 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밖의 油種에서 안정기금을 빼어내는 데도 그 비율은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輸入原油價格이 내리면 國內油價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닥칠 지도 모르고 안 닥칠 지도 모르는 불행을 반드시 닥칠 것이라고 단정하고 不安해 하는 것이 悲觀論의 定義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조심스런 樂觀 위에서 原油價下落에 에너지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金乾洽·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